

최충에 대한 역대 인식 변화와 문묘종사 논의의 이해

李 聲 昊*

목차

- I. 머리말
- II. 고려시대
 - 1. 유종(儒宗)
 - 2. 문헌(文憲)
 - 3. 구재(九齋) 및 해동공자(海東孔子)
- III. 조선전기
- IV. 조선후기
- V. 근대
- VI. 맺음말

■ 국문초록

고려시대에 최충에게 붙여진 ‘유종, 문헌, 해동공자’와 같은 다양한 칭호를 부여 받은 학자도 드물다. 그 칭호에는 북송성리학의 영향과 함께 문묘종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초기 세종대의 문묘종사 논의는 실현되지 못하지만 해주 지역 향교에 서는 성종대에 독자적으로 종사하다가 국가로부터 철회당하고 있다. 해주에 서는 중종대에도 재차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조광조가 펼친 『소학』 운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황의 영향으로 ‘문헌서원’이 건립되었고, 기대승은 ‘공맹의 심학(心學)과 기자의 홍범구주의 수를 아는자’로 인식하였다. 또 율곡 이이는 해주향약에서 최충을 추승하고, 직접 문헌서원 학구를 저술한다.

*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박사과정 / bsuhj3@chol.com

최충의 학문이 ‘심학’으로 인식된 이후에는 ‘이학(理學)’을 정자·주자 보다 먼저 밝혔다고 주장하고, 홍양호도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화해사전(華海師全)』에서는 결국 최충을 주자성리학의 시조로 인식하게 된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장지연은 최초로 최충과 호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드디어 최충을 ‘최자(崔子)’로 호칭하는 저서가 등장한다. 최충의 후손인 최경식이 저술한 『최자전실기』이다. 이 책에서 『여사제강』을 인용하여 최충을 호원의 ‘호소지교(湖蘇之敎)’와 비교하지만 실제로는 『송대사기강의』를 그대로 전사한 것이다. 이후 쓰인 글들 중에는 이 오류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게 된다.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최경식은 최충을 ‘최자(崔子)’라고 존송하는 평가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후의 학자들은 공묘(孔廟)에 종사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문묘종사(文廟從祀), 최충(崔沖), 유종(儒宗), 문헌(文憲), 해동공자(海東孔子)

I. 머리말

최충(崔沖, 984~1068)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이후의 자료들은 최충 당대의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물론 최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유학이 시대 이념일 때는 학자에 대한 최종 영예가 ‘문묘종사’였다. 그런데 최충에 대해서는 ‘문묘종사’에 대한 논의가 유독 치열하였고, 그 때문에 새로운 사상성을 ‘발견’하거나 ‘투여’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인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과정이 시대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추적하는게 본 글의 목적이다. 물론 이런 목적의식은 기존의 연구성과에 힘입은 바이다.

그 연구성과에는 우선 박성봉(朴性鳳)을 꼽을 수 있다. 광복이후 최초의 최충 연구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최충이 문묘종사되지 못한 이유¹⁾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반론의

논리로 인용하는 세 학자가 바로 홍양호·장지연²⁾·이능화³⁾였고 이들의 논의를 수용하여 최충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⁴⁾ 그런데 이들 세 학자의 논리는 어디에서 기인하였으며, 어떤 전개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을까? 또 최충 본래의 모습은 무엇이며, 본래의 모습과 인식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혹은 전혀 유사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재창조된 인식’은 아닌가 하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최충에 대한 이후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두 차례에 걸쳐 논쟁이 발간되면서 최충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다.⁵⁾ 사상사 분야의 연구성과에서는 정자보다 앞서거나 대등하다고 평가하거나,⁶⁾ 송학이라고 평가하거나,⁷⁾ 직접적으로 신유학이라고 평가하거나,⁸⁾ 혹은 신유학과 부합한다고 평가하는⁹⁾ 등의 연구들이 나왔다. 또 최충의 사상과 교학체제를 복송성리학의 시원인 호원(胡瑗, 993~1059)¹⁰⁾과 대비하는 연구¹¹⁾도 나왔다. 이와같은 연구 성과는 최충을

-
- 1) 박성봉, 「해동공자 최충 소고 - 고려시대 유학사의 일면 -」 『史叢』 1(1955), 39쪽에서 “佛寺의 비문을 지은 사실과 敎誨에 科業을 위주로 했다.”는 점 때 문이라고 하였다.
 - 2) 장지연, 『조선유교연원』(서울: 匯東書館, 1922), 5쪽. “與宋儒胡安定瑗同時 而其敎授後進之功 亦相同”
 - 3) 이능화, 「고려 최충」 『청구학총』 22(1935), 179쪽. “我東理學 以鄭文忠公夢周爲之元祖 則僅發萌芽而已 崔文憲公時 與趙宋上世相並 而程朱諸人 尙未出世 遑論其性理學說之及於高麗哉 … 然則崔文憲公 非但爲海東孔子而已 亦可爲海東程朱也 然則以海東孔子之英靈 不得血食於海東之孔廟可乎”
 - 4) 박성봉, 「해동공자 최충 소고」 42쪽. “程朱가 未出世時에 벌써 이 방면에 留意한 崔沖은 참으로 누구에게도 못지 않는 儒宗으로서 ‘해동공자’의 稱에 조 금도 어긋남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5) 경희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최충연구논총』(서울: 1984). 문헌공최충선생기념사업회, 『儒學史上 崔沖의 位相』(서울: 1999).
 - 6) 김충렬, 「최충 사학과 고려유학」 『최충연구논총』(서울: 1984).
 - 7) 劉明鍾, 「崔沖先生과 文憲公徒의 宋學受容」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서울: 1999), 문헌공최충선생기념사업회, 1999.
 - 8) 池斗煥, 「최충의 신유학 사상」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서울: 1999).
 - 9) 문철영, 「고려중기 유학의 심성화 경향」 『고려유학 사상의 새로운 모색』(서울: 경세원, 2005), 33~34쪽. “신유학의 단계적 흐름을 고려 유학계에서도 똑같이 밝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 10) 『宋元學案』 권2, 「泰山學案」. “先文潔公曰 宋興八十年 安定胡先生 泰山孫先生 徂徠石先生 始以師道明正學 繼而濂洛興矣 故本朝理學至伊洛而精 實自三

신유학 및 북송성리학¹²⁾과 연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Ⅱ장에서는, 최충을 고려 당대에는 어떤 유학자로 인식했는지를 검토하면서 최충에게 내린 다양한 칭호에 주목하였다. 생존시나 사후에 내려진 칭호는 그 인물의 중요도 및 학문적 성과를 보여준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동안 최충의 칭호에 내재된 의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충에 관한 ‘유종(儒宗)’ ‘문헌(文憲)’ ‘해동공자(海東孔子)’의 칭호와 최충이 직접 세운 ‘구재(九齋)’의 명칭 및 그 이칭(異稱)인 ‘문헌공도(文憲公徒)’를 검토하고, ‘유종(儒宗)’의 칭호가 적용된 중국 및 우리나라의 인물을 비교·검토 하고자 한다. 문헌(文憲)의 시호는 장수철의 『사기정의』와 소순(蘇洵)의 『시법(諡法)』을 통해서 검토하고, 또 최충이 해동공자로 불리게 된 이유를 밝히고, 구재 재명(齋名)의 의미와 공자에 비견되는 이유를 서술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주자성리학을 국시로 창건한 국가인 조선에서 최충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문묘종사 논의 과정은 최충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권근의 종사와 연계되는데 그 이유를 검토하고자 한다. 성종대의 논의는 해주 향교의 문묘에서 독자적으로 최충이 중향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치폐 과정을 서술하면서 최충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중종대의 논의는 조광조의 『소학』 운동과 함께 호원(師儒)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해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최충이 해주 향교에 재

先生而始 故晦庵有伊川不忘三先生之語”

- 11) 이성호, 「최충과 호원의 분재교학법 비교」 『지역과 역사』 28(2011).
- 12) 북송성리학 및 신유학에 대한 용어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하겠다. 지두환, 『한국사상사』(서울: 역사문화, 1999), 80쪽에서 “고려전기 유학을 ‘신유학’ 고려후기에는 ‘주자성리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철영, 『고려유학 사상의 새로운 모색』 18쪽에서 “왕안석의 신학에서부터 주자의 이학까지를 포함하는 송대의 이러한 다양한 학풍을 신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앞의 주(註) 8번처럼 최충 단계의 유학을 북송 신유학과 병렬적인 단계로 표현하고 있다. 후외려, 『송명이학사 1』에서는 호원 단계를 ‘북송 이학(理學)의 선구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상의 논지를 바탕으로, 최충 단계의 유학을 북송성리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중향된 문제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후 서원설립 운동을 전개하는 중심 인물인 퇴계 이황(李滉)과 율곡 이이(李珣)의 인식을 서술하고자 하였으며, 또 최초로 최충의 사상을 ‘심학(心學)’으로 인식한 기대승의 논의도 검토하고, 호원의 문묘종사 문제도 서술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조선후기 인식변화 과정을 검토하였다. 최충의 학문이 ‘심학(心學)’으로 인식된 이후에는 최충의 후손들이 최충에게 ‘이학(理學)’이라는 의미를 부가하면서 북송성리학자와 동일시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홍양호의 인식과 「화해사전」에 서술된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김육이 저술한 『해동명신록』에 나타나는 인식을 검토하고, 그동안 최충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불교 비문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근대에 와서 최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학·심학을 통해서 북송성리학자로 인식된 최충이 장지연에 의해서 북송성리학의 시원인 호원과 비교되는 점을 서술하고, 최경식의 『최자전실기(崔子全實記)』의 의미를 분석하는 한편 이 책의 문제점도 함께 서술하고자 한다. 이어서 김택영, 이능화의 인식을 서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최충의 인식변화에 대한 논문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으면 한다.

II. 고려시대

1. 유종(儒宗)

문종 7년(1053)에 최충이 나이 70세가 되어서 치사를 하려고 하자 국왕이 만류하고 있다.

시중 최충은 누대의 유종(儒宗)이요, 삼한의 기덕(耆德)이라 이제 비

록 노퇴(老退)하기를 청하나 차마 운종할 수 없다.¹³⁾

이때 문종은 최충을 유종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종의 사전적 의미는 ‘유학의 종사(宗師)’란 뜻이다. 최충이 문종 10년(1056)에 73세 되던 해에 조(詔)를 하사하는데, “경은 유관(儒冠)의 규열(圭臬)이요 신화(神化)에 단청(丹青)이었다.”¹⁴⁾고 하면서 역시 유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 ‘유종(儒宗)’의 용어에 대해서 박성봉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앞의 주(註) 4번처럼 ‘儒宗으로서 해동 공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의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 유종이란 의미는 결국 유교가 전래된 중국에서 학문과 함께 뜻이 전래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를 살펴서 최충에게 그 의미를 적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 본다.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기(史記)』에서 최초로 숙손통에게 적용하고 있다.¹⁵⁾ 숙손통은 전한 고조시대의 인물로 의례를 제정하고 유교를 일으켰기 때문에 유종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한서(漢書)』에는 동중서(董仲舒)에게 적용하고¹⁶⁾ 있다. 『신당서』에서는 동중서와 유향(劉向)을 언급하고¹⁷⁾ 있다. 동중서와 유향이 이렇게 언급된 이유는 『구당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중서와 유향 둘 다 『춘추』를 통해서 재이(災異)를 논하였다는 점에서 반고가 한나라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의 설을 채용하였다¹⁸⁾는 것이다. 그래서 동중서와 유향은 둘 다 중국 문묘에 종사되고 있고, 고려 문선왕묘에는 유향도 종사되어 있다.¹⁹⁾ 유향과 동중서가 언급된 『한서(漢書)』는 이미 고려에 들어와 있었고²⁰⁾ 문종 당시에는 이런 책들에 대한 인쇄가 다시 이루어지고

13) 『고려사』 권95, 열전 8, 崔冲.

14) 『고려사』 권95, 열전 8, 崔冲.

15) 『史記』 권99, 열전 39, 叔孫通. “叔孫通希世度務 制禮進退 與時變化 卒爲漢家儒宗”

16) 『漢書』 열전 36, 劉向. “仲舒爲世儒宗 定議有益天下”

17) 『新唐書』 권168, 열전 93, 柳宗元. “董仲舒劉向下獄當誅 爲漢儒宗”

18) 『舊唐書』 권37, 志 17, 五行. “漢興 董仲舒劉向治春秋 論災異 乃引九疇之說 附于二百四十二年行事 一推咎徵天人之變 班固敍漢史 採其說五行志”

19) 『고려사』 권62, 지 16, 문선왕묘.

있다.²¹⁾ 『신당서』는 북송에서 1060년에 완성되기 때문에 문종 7년에는 수입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신당서』에 표현된 유향을 유종이라고 인식하였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런데 문종이 최충을 유향과 비교하였던 이유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름 4월에 동지중추원사 최충이 아뢰기를, “성종 때에 안팎 모든 관청 벽에 모두 『설원』의 육정육사(六正六邪)의 글과, 한 나라 자사의 육조령(六條令)을 써서 붙이게 하였는데, 지금은 세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다시 새로 써 붙여서 벽에 있는 사람에게 신칙하고 격려한 바를 알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²²⁾

최충이 제시하는 육정·육사는 『정관정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고²³⁾ 한다. 또 유향과 『설원(說苑)』이 고려에서 유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帝)가 우리나라 서적에 좋은 판본이 많음을 듣고 관반에게 명하여 구서(求書) 목록을 써서 주면서 이에 말하기를, ‘비록 권질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또한 모름지기 전사(傳寫)하여 부쳐오라’고 하였습니다.²⁴⁾

선종 8년(1091)에 송에서 돌아온 이자의가 올린 기사이다. 오히려 고려의 판본이 더욱 좋다는 의미는 고려에서 그만큼 중요시 되었다는 것이고, 송나라에서도 전사하여 오라고 할 정도의 서적으로 ‘유향’의 『설원』과 『유향칠록(劉向七錄)』²⁵⁾이 꼽히고 있는 것이다.

20) 『고려사』 성종 12년 2월 기사에 漢書가 언급되어 있다 ; 『고려사』 정종 8년 2월에는 전한서, 후한서, 당서를 신간하고 있다.

21) 『고려사』 권7, 문종 10년 8월. “청컨대 비서각(秘書閣)에서 소장(所藏)하고 있는 구경(九經), 한서(漢書), 진서(晉書), 당서(唐書), 논어(論語), 효경(孝經), 자사(子史), 제가문집(諸家文集), 의(醫), 복(卜), 지리(地理), 율(律), 산(算) 등 여러 서적을 나누어 주어 여러 학원(學院)에 두도록 하소서...”

22) 『고려사절요』 권4, 덕종 3년 4월.

23) 지두환, 『최충의 신유학 사상』 325쪽.

24) 『고려사』 권10, 선종 8년 6월.

25) 『靑莊館全書』 권53, 耳目口心書. “高麗 宣宗八年 進奉使李資等 還自宋 奏云

북송에서 유종을 지칭한 인물과 동시대의 인물인 최충을 비교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으나 북송대의 사상을 거의 동시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 유사성을 보일 수 있다고 본다. 다음에서 언급하는 『송사(宋史)』의 유엄(劉翥, 1048~1102)²⁶⁾을 그런 의미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북송 당대의 사람들이 유엄을 유종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것은 유엄이 한유(韓愈, 768~824)와 구양수(歐陽修, 1007~1072)를 계승한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유와 구양수가 유종인 것은 당연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왕안석도 『상소학사서(上邵學士書)』에서 ‘한창려(한유)는 당나라의 유종이었다 [昌黎爲唐儒宗]’²⁷⁾라고 하여 한유를 유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유는 공맹도통설과 ‘문이재도(文以載道)’의 문체인 고문체를 주창한다. 그래서 고려에서도 최언위가 지은 비문에서 한유의 문체인 원체(原體)의 문장이 나타나고 있다.²⁸⁾ 또 한유·이교 등의 공맹도통설을 수용하여²⁹⁾ 동국도통론을 수립하니 현종 11년(1020)에 최치원을 공자묘에 종사하였고,³⁰⁾ 현종 13년(1022)에 설총을 종사하였다.³¹⁾ 또 맹자 존숭과도 관련이 있으니 “송나라 유학자가 맹자를 존숭한 것은 그 단서가 양관(楊綰)·한유(韓愈)에서 시작되었고 피일휴(皮日休)에서 그 학설이 뻗어나갔다.”³²⁾고 하였다. 구양수는 『신당서』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의 역사 인식³³⁾과 함께 유종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남송에서는 주희(朱熹)에게도 적용되고 있다.³⁴⁾

… 說苑二十卷 劉向七錄二十卷 劉歆七畧七卷”

- 26) 『宋史』 권444, 열전 203, 劉翥. “有龍雲集三十卷 周必大序其文 謂廬陵自歐陽文忠公以文章續韓文公正傳 遂爲一代儒宗 繼之者翥也”
- 27) 『臨川文集』 권75.
- 28) 지두환, 『한국사상사』(서울: 역사문화, 1999), 116쪽.
- 29) 劉明鍾, 『崔沖先生과 文憲公徒의 宋學受容』.
- 30) 『고려사』 권4, 현종 11년 8월.
- 31) 『고려사』 권4, 현종 13년 1월.
- 32) 趙翼, 『陔余叢考』 권4, 尊孟子. “宋儒之尊孟子 其端發于楊綰韓愈 其說暢于皮日休”(楊朝亮, 『試論宋初“三先生”在儒學發展史上的歷史地位』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2002년 3기, 102쪽에서 재인용)
- 33) 지두환, 『한국사상사』 131쪽. “구양수의 『신당서』의 역사인식을 수용하여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려 후기 충선왕 때에는 “유종(儒宗)인 홍유후 설총, 문창후 최치원에게는 함께 마땅히 시호를 줄 것이다.”³⁵⁾처럼 설총과 최치원을 유종으로 칭한다. 공양왕 때에는 “관문하 이색(李穡)이 우리 현릉을 섬겨 유종으로서 보상(輔相)에 위(位)하였더니…”³⁶⁾처럼 이색을 유종으로 칭한다. 고려 묘지명³⁷⁾ 제외하고 관찬 사서에서 유종이라는 표현은 최충과 이색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이미 설총과 최치원은 현종대에 문묘에 종사되었기 때문에 최충과 이색을 유종으로 칭한다는 것은 문묘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컸지만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종의 의미에다가 최충이 사직한다고 했을 때 내린 관고(官誥)에서 그 의미를 보완하고 있다. 최충과 비교되는 인물로는 “당웅(唐雄), 예형(禰衡), 주이(朱异), 극선(郗詵), 숙향(叔向), 장화(張華), 여회(如晦), 위서(魏舒), 도홍경(都弘慶)”이다. 이들은 최충의 전인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당웅’은 ‘당나라 태종 당시의 영웅’을, ‘예형’은 뛰어난 인물을, ‘주이’는 부유함을 상징하는 인물을, ‘극선’은 과거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인물을, ‘숙향’은 다능한 인물을, ‘장화’는 박학한 인물을, ‘여회’는 두여회(杜如晦)로 명상으로서 이름을 드러낸 인물을, ‘위서’는 인륜의 영수를 상징하는 인물을, 도홍경은 산중에서 대사를 자문하는 인물을 상징한다.

관고(官誥)의 마지막에 “사자(四子)와 팔원(八元)이 전미(專美)케 하지 말게 하라”고 하여 최충의 능력이 사자·팔원에 못지않음을 알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사자’는 ‘주공(周公)·태공(太公)·소공(召公)·사일(史佚)’이다. ‘팔원’은 오교(五交)를 사방에 전파한 인물로 언급되고 있다.³⁸⁾ 관고에서는 주공(周公)과 비교되고 있다. 북송성리학

34) 『宋史』 권434, 열전 193, 劉子翬. “及熹請益 子翬告以易之不遠復三言 俾佩之終身 熹後卒爲儒宗”

35) 『고려사』 권33 충선왕 복위년 11월.

36) 『고려사』 권115, 열전 28, 이색(李穡).

37) 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 447쪽. 최증묘지명(崔証墓誌銘)에서 ‘以文學顯世號爲儒宗’라고 하여 유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의 특징은 주공(周公)에 대한 인식을 당대(唐代)의 선사(先師)에서 선성(先聖)으로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다³⁹⁾는 점이다.

이상에서 중국에서 유종으로 인식되는 인물은 숙손통, 동중서, 유향, 한유, 구양수 및 남송의 주희가 있다. 최종 당대에서는 최종에게만 적용하였고, 고려 후기에 설총·최치원·이색에게 적용하여 고려 시대에는 합하여 4명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종과 이색의 경우에는 생전에 붙여졌는데 비해 설총·최치원과 중국의 숙손통은 사후에 붙여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칭호가 부여된 인물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생전이나 사후를 막론하고 의미가 있지 않다고 한다.

2. 문헌(文憲)

죽은 자에 대해 살아서의 공적과 학문, 성품 등을 고려하여 시호를 붙이는 시법(諡法)이 시작된 것은 주나라 때부터였다. 『예기』에 따르면 “어려서는 이름을 부르고, 관례를 올린 뒤에는 자를 부르고, 50세가 되면 백(伯)이나 중(仲)을 칭하며, 죽어서는 시호(諡號)가 있는 것은 주나라의 도이다.”고⁴⁰⁾ 하였다. 그 소(疏)에는 “은나라 이전에는 살아 있을 적에 부르는 호가 있었는데, 이것이 죽은 뒤에 그대로 칭호가 되었으며, 별도로 시호가 없었다. 요, 순, 우, 탕의 예가 바로 이것이다. 주나라의 경우에는 죽은 뒤에 별도로 시호를 지었다.”⁴¹⁾고 하였다.

문종 22년 최종이 졸하자 문종은 최종에 대해 문헌의 시호를 내렸다.

38) 『史記』 권1, 五帝本紀, 帝舜. “肯高陽氏有才子八人 世得其利 謂之八愷 高辛氏有才子八人 世謂之八元 此十六族者 世濟其美 不隕其名 至於堯 堯未能舉舜舉八愷 使主后土 以揆百事 莫不時序 舉八元 使布五教于四方 云云”

39) 지두환, 『한국사상사』 80쪽.

40) 『禮記大全』 권3. “幼名冠字 五十以伯仲死諡周道也”

41) 『禮記大全』 권3. “疏曰 凡此之事皆周道也 又殷以上有生號 仍爲死後之稱更無別諡 堯舜禹湯之例是也 周則死後別立諡”

이때에 와서 충이 줄하니, 태의감 이염에게 조서를 가지고 가게 하여서 조위하고 시호를 문헌(文憲)이라 하였으며, 정종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그 뒤에도 과거를 보려는 사람이 모두 9재에 적을 두니, 문헌공도라고 하였다.

최충이 생존했을 때 받은 칭호가 ‘유종’이었다면 그에 걸맞은 시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고려 당대에는 그 시호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에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책은 당나라 장수절(張守節)의 『사기정의』이다.

주공단과 태공망이 무왕(武王)을 도와 왕업을 이룩하고 목야(牧野)에서 싸워 대공을 세웠으며, 무왕을 장사지낼 때에 시호법을 제정, 드디어 시법(諡法)을 서술하였다. 시(諡)는 行의 자취[迹], 호(號)는 공(功)의 표시[表], 거복(車服)은 위(位)의 문채이다. 그러므로 대행(大行)에는 대명(大名)이, 세행(細行)에는 세명(細名)이 받아지게 되는데, 행(行)은 자신에게서 나오고 명(名)은 남에게서 이루어진다. 옛날에 대공(大功)이 있으면 선호(善號)를 하사하여 칭호로 삼았다.⁴²⁾

장수절은 『사기정의』 서문을 당 현종 개원 24년(736)에 썼다.⁴³⁾ 이 책의 시법에서 ‘문(文)’에는 ‘經緯天地文, 道德博聞文, 學勤好問文, 慈惠愛民文, 愍民惠禮文, 賜民爵位文’의 뜻이 있고, ‘헌(憲)’에는 ‘博聞多能憲’⁴⁴⁾의 뜻이 있다. 그런데 장수절의 시법 이외에도 고려에서 참고했을 가능성이 큰 책은 소순(蘇洵, 1009~1066)의 『시법(諡法)』이다. 그 ‘문(文)’에는 ‘施而中理曰文, 經緯天地曰文, 敏而好學曰文, 脩德來遠曰文, 忠信接禮曰文, 道德博聞曰文, 剛柔相濟曰文, 修治班制曰文’의 뜻이 있고, ‘헌(憲)’에는 ‘賞善罰惡曰憲, 博聞多能曰憲, 行善可記曰憲’⁴⁵⁾의 뜻이 있다.

42) 『史記正義』 論例諡法解. “惟周公旦太公望 開嗣王業建 功于牧野 終將葬乃制諡 遂叙諡法 諡者行之迹 號者功之表 車服者位之章也 是以大行受大名 細行受細名 行出於已 名生於人 古者 有大功則賜之善號以爲稱也”

43) 『史記正義』, 序. “丙子開元二十四年八月 … 張守節上”

44) 『史記正義』 論例諡法解.

그런데 ‘문’의 시법은 소순의 서술에 의하면 ‘神-聖-賢-堯-舜-禹-湯’ 다음 순서에 위치하여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문(文)’ 다음에는 ‘무(武)’가 위치하여⁴⁶⁾ 도통론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 그 중에서 ‘施而中理’에 대한 주해를 살펴보면 “下而至於孔文子公叔文子 仲尼皆以文許之 是一節中理者也”라고 하여 이치에 맞아야 ‘문’이라는 시호를 하사한다고 하였다. 소순의 시법이 ‘도통론’을 적용하고 ‘중리(中理)’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복송성리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순이 이 책을 저술한 해는 정확하지 않지만 소순의 몰년이 1066년이고 최충의 몰년이 1068년이기 때문에 최종 사후에 참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헌 시호 이후에 최충의 구제를 문헌공도라고 하였고, 정종 묘정에 배향되면서 태사(太師)의 칭호를 얻게 된다. 고려에서 문헌은 최충에게만 사용되었지만 조선에서는 훌륭한 학자에게 내려지고 있다. 고봉 기대승에게 문헌이란 시호가 하사된다.⁴⁷⁾ 이유태(李惟泰, 1607~1684)에게도 문헌(文憲)의 시호가 내려진다.⁴⁸⁾

중국에서는 주공(周公)을 문헌왕(文憲王)이라고 추시(追諡)하고 있다.⁴⁹⁾ 이때가 대중상부 원년(1008)이다. 물론 이 추시는 ‘왕’의 칭호가 붙은 것이지만 그 의미는 소순의 ‘시법’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앞의 관고에서 최충을 ‘사자’ 중에서 ‘주공(周公)’에 못지 않다고 표현한 점과 내용상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공자는 주공을 후세의 중국 황제들과 대신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인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

45) 『諡法』, 권1.

46) 『諡法』, 권1.

47) 『高峯集』 고봉 선생 연보.

48) 『사계진서』 권47, 부록(附錄), 문인록(門人錄).

49) 『宋史』 권47, 眞宗 大中祥符元年. “十一月戊午 幸曲阜縣 謁文宣王廟 鞞袍再拜 幸叔梁紇堂 近臣分奠七十二弟子 遂幸孔林 加諡孔子曰玄聖文宣王 遣官祭以太牢 給近便十戶奉塋廟 賜其家錢三十萬 帛三百匹 以四十六世孫聖佑爲奉禮郎 近屬授官賜出身者六人 追諡齊太公曰昭烈武成王 令青州立廟 周文公曰文憲王 曲阜縣立廟”

3. 구재(九齋) 및 해동공자(海東孔子)

최충에 관한 유종의 의미는 최충이 ‘구재’를 세우면서 개념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현종 이후에 전란이 겨우 멎었으나 미처 문교에 힘을 돌리지 못하였다. 이때 최충은 후진들을 집합하여 교양하는 일에 정력을 바쳤으므로 학도들이 모여 들어 거리와 골목에 차고 넘쳤다.⁵⁰⁾

현종 이후 거란과 전란이 멎으면서 학교를 창건하는데 그 중심 인물이 최충이라는 점이다.

또 유신 중에 도를 둔 자가 11명이 있어 세상에서 12도라고 일컬었으나 충의 도가 가장 성하였다. 동방에 학교가 일어난 것은 대개 최충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당시에 그를 해동공자라고 하였다.⁵¹⁾

최충이 치사(致仕)한 해인 문종 9년(1055)에 구재를 세우는 것에 관한 기사이다. 이때 최충을 해동공자라고 하는 것은 ‘구재’를 세웠기 때문에 ‘해동공자’의 칭호를 붙이게 된 것이다. 위 문장에서 ‘동방의 학교가 일어난’ 때문에 ‘당시에’ 최충을 해동공자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충이 학교를 세운 것 자체가 공자에 비견되는 것으로 당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구재’의 재명(齋名)이다.

그래서 최충은 드디어 낙성(樂聖), 대중(大中), 성명(誠明), 경업(敬業),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대화(大和), 대빙(待聘) 등 9개의 서재[九齋]로 나누어 교수하였으니 세상에서 그들을 시중 최공의 학도[侍中崔公徒]라고 불렀다. 그래서 일체 과거 보려는 자제들은 반드시 먼저 그의 학도로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⁵²⁾

50) 『고려사』 권95, 열전 8, 최충.

51) 『고려사』 권95, 열전 8, 최충.

52) 『고려사』 권95, 열전 8, 최충.

聖(樂聖), 中(大中), 誠(誠明), 敬(敬業), 道(造道), 性(率性), 德(進德), 和(大和), 禮(待聘)의 용어 중에서 聖, 中, 誠, 敬, 道, 性, 德, 和, 禮⁵³⁾은 수심 실천으로 가는 북송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열거한 것이다.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가 바로 수심수신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단어들이 바로 聖, 中, 誠, 敬, 道, 性, 德, 和, 禮 같은 단어들이었다. 뒤의 주자성리학은 이를 체계화시킨 것이다. 북송대는 이러한 단어들을 뽑아 체계화시켜 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대학』·『중용』이 『예기』에서 분리되어 경전으로 등장하는 과정이었다.⁵⁴⁾ 이들 재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미 최종 단계의 유학이 사서(四書: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연구의 단계로 진입했음이 지적된 바 있다.⁵⁵⁾ 그러나 재명(齋名)에서 경전과의 관련이나 진학 계제(階梯)를 찾으려는 것은 무리라는 논지가 있고⁵⁶⁾ 단순한 분반이 아니라 교과과정에 따른 진학단계였다는 주장이⁵⁷⁾ 있지만, 실제로는 심성에 따른 분류를 보여주는 이을호의 견해는 최종의 구제를 수기·치인으로 분석하는 탁월함을 보여준다. 수기(낙성, 대중, 성명)와 치인(경업, 조도, 술성, 진덕, 태화, 대빙)으로 구분하여 북송성리학의 수기치인론을⁵⁸⁾ 잘 설명하고 있다. 장구나 외우고 과거준비나 일삼는 ‘위인지학’이 아니라 ‘존덕성, 도문학’을 중지로 하는 ‘위기지학’이었다고⁵⁹⁾ 한다. 따라서 고려 당대에, 최종이 구제를 세웠기 때문에 해동공자라고 한다는 점은 북송성리학자의 모습을 인지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53) 이을호, 「한국유학사상 최종의 위치」 『최충연구논총』, 경희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84, 275쪽.

54) 지두환, 『조선성리학과 문화』(서울: 역사문화, 2009), 320쪽.

55) 지두환, 『조선성리학과 문화』, 이을호의 글을 인용하면서, 문종대 최종의 9 재학당의 이름에서 벌써 4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56) 박찬수, 「사학십이도의 성립과 변천」 『고려시대 교육제도사 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1).

57) 박성봉, 「국자감과 사학」 『한국사』 6(1975) ; 윤남한, 「유학의 성격」 『한국사』 6(1975).

58) 이을호, 「한국유학사상 최종의 위치」 279쪽.

59) 김충렬, 「최충 사학과 고려유학」 42~44쪽.

또 문종 22년에 졸할 당시 국왕이 평가한 문장에서 최충의 위치를 알 수 있다. ‘變齊之魯’⁶⁰⁾하는 문장을 가졌다⁶¹⁾는 평가이다. 최충은 북송대의 호원(胡瑗)과 비교되고 있는데, ‘變齊之魯’의 부분이다. 호안정[호원]과 손명복[손복]은 ‘魯一變’의 기상이 있다는 뜻으로 최충보다 한단계 위의 의미인 ‘至於道’의 경지라고 인식하고 있다.⁶²⁾ 그런데 최충을 평가하면서 ‘선니(宣尼)의 죽음을 느꼈다.’에서 공자에 비견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한다. 최충을 공자에 비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충 이전의 고려시대에 공자 인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찍이 송유(崇儒)함은 간절하여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풍을 일으키고자 하고 당우(唐虞)의 다스림에 이르기를 바라는 상서(庠序)로 이를 기르고 과목(科目)으로 이를 취하였다.⁶³⁾

공자는 송유의 대상이면서 학교를 일으키는 근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종 때에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3천명의 학도를 길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옛날에 공자께서 비록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녔으며 오히려 3천 명의 학도를 길렀고...⁶⁴⁾

또 최충 이외에는 관찬 사서(史書)에서 해동공자의 용어를 적용하

60) 『논어』 권6,雍也. “子曰 齊一變 至於魯 魯一變 至於道”

61) 『고려사』 권95, 열전 8, 최충. “경(卿)의 부(父)는 인중(人中)의 의봉(儀鳳)이요 조우(朝右)의 원구(元龜)라. 제(齊)를 변(變)하여 노(魯)에 이르게 하는 문장(文章)을 가져 일찍이 대보(大輔)에 올랐고...”

62) 『朱子語類』 권129. “某問 此風俗如何可變 曰 如何可變 只且自立 可學 論安定規模雖少疏 然卻廣大著實 如孫明復春秋雖過當 然占得氣象好 如陳古靈文字尤好 嘗過台州 見一豐碑 說孔子之道 甚佳 此亦是時世漸好 故此等人出 有魯一變氣象 其後遂有二先生 若當時稍加信重 把二先生義理繼之 則可以一變 而乃爲王氏所壞”

63) 『고려사』 권74, 지 28, 국학(國學).

64) 『고려사절요』 권9, 인종 8년.

지 않고 있다. 묘지명에서 쓰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윤언이(尹彦伊)가 있다. 김자의(金子儀)는 윤언이의 묘지명 본문에서 “공은 곧 해동의 공자입니다.”라고 한 다음에 명(銘)에서 학문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육경을 깊이 공부하고, 여러 역사서를 섭렵하면서 / 온 경전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문득 외우도다. / 성명(性命)의 이치와 도덕의 근원을 / 닦아서 우리 공처럼 거침 없이 통달하리오.⁶⁵⁾

‘성명(性命)의 이치’라는 문맥에서 복성성리학의 영향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윤언이의 아버지인 윤관에게도 나타나는 성향이였다. 즉 윤관은 『맹자』에 나타나는 대외관계 인식을 존중하고 있었다.⁶⁶⁾ 그래서 연구자 중에는 윤관의 『맹자』 존송과 최충의 구제에 보이는 조도재(造道齋)도 『맹자』를 강론하는 곳으로 설정하여 최충·윤관을 사제관계로 파악하기도 한다.⁶⁷⁾ 역시 최충과 사승관계로 파악되는 김양감과 윤관은 사돈 관계이다. 또 윤관과 최충 집안도 연결되는데, 윤관의 사돈인 류홍(柳洪)의 자녀들은 각각 최사추와 김상기(金上琦)의 사위와 며느리가 된다.⁶⁸⁾ 이런 영향으로 윤언이는 김부식과 『주역』을 논쟁할 정도로 주역에 능통하였다. 윤언이가 윤관을 계승하여 『주역』에 능통한 모습과 함께 ‘해동공자’로 비견되는 것은 정자가 자신을 공맹(孔孟)에 비유한다는 소문이 있는 것⁶⁹⁾과 아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국가적 공식 차원은 아니지만 최충을 계승한 인물

65) 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 171쪽

66) 『고려사』 권96, 열전 9, 윤관. 윤관이 동북 지방을 정벌하고는 임언에게 글로써 기록하게 하였는데 그 때 맹자를 인용하고 있으니, “맹자의 말에 ‘약한 자는 원래 강한 자에게 대적할 수 없고 작은 자는 큰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외운 지는 오래나 오늘에 와서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67) 劉明鍾, 『崔沖先生과 文憲公徒의 宋學受容』, 92~94쪽.

68) 정수아, ‘윤관세력의 형성 - 윤관의 여진정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의 검토를 중심으로 -」 『진단학보』 66(1988), 5~7쪽.

69) 『二程子抄釋』 권8. “近有人說 伊川自比孔孟”

로서 ‘해동공자’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해동공자로 불리는 이규보(1168~1241)가 있다. 그의 칭호는 그가 ‘溫良恭儉’⁷⁰⁾하였기 때문이니, 이것은 공자의 ‘夫子溫良恭儉 讓以得之’⁷¹⁾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공자의 성품을 비유한 것이다. 이규보는 최충과 달리 공자의 성품 중 일부 때문에 지칭되는 것이고 공론으로 까지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II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최충의 칭호에 부여된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유종이란 칭호는 고려에서 설충·최치원·최충·이색에게만 적용하고 있는데 설충·최치원은 문묘종사되어 있다. 북송 이전에는 숙손통·동중서·유향·한유·구양수 및 남송의 주희에게 유종의 칭호를 적용하고 있는데 숙손통을 제외하고 모두 문묘종사되었다. 따라서 유종이란 칭호는 문묘 종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문헌이란 시호는 소순(蘇洵)의 『시법(諡法)』에 따라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송성리학의 영향이다. 또 문헌(文憲)에는 북송대에 선성(先聖)으로 추송된 주공(周公)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고, ‘문헌공도’의 칭호는 사학 12도의 제1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 구재의 재명에서 이미 북송성리학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고, 교과 내용도 경학 위주였다. 최충은 공자에 비견되고 있고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해동공자’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는데 호원과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박성봉의 지적대로 ‘유종이면서 해동공자’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최충의 칭호에는 북송성리학의 영향과 함께 문묘종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III. 조선전기

조선은 주자성리학을 국시(國是)로 창건한 국가이다. 그래서 유달리 성리학적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런 부분이 최충의

70) 『동문선』 권123, 묘지(墓誌), 이규보. “海東孔子 溫良恭儉”

71) 『논어』 권1, 학이(學而).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최초로 태종때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에서 최충을 언급하고 있다.

전조 때에 문헌공 최충이 사는 집과 창적을 내놓아서 구재에 붙이어 생도를 교육하였으니, 비록 사장만을 숭상했다라도 문교에는 도움이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국초에 구재를 혁파하고 오부 학당을 설치하여 성리의학을 밝혔으니, 참으로 삼대(三代) 교화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그 창적을 부학(部學)에 붙이지 않고, 모두 사가에 돌렸으니, 문헌공의 뜻이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지금 명하여 오부 도학당을 지어 인재를 교육하시니, 원컨대, 구재의 노비를 학당에 붙িয়ে 문헌공의 뜻을 이루면, 전하가 학문을 높여 작성하는 아름다움이 더욱 나타날 것입니다. … ” 의정부에 내리니, 의논하기를, “구재의 노비는 마땅히 학당에 환속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⁷²⁾

최충의 구재에서는 사장만을 숭상했지만 문교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장만을 숭상하였다는 점은 최충의 구재가 ‘과업(科業)’을 위주로 공부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인다. 조선시대 주자성리학은 ‘위인지학’이 아니라 ‘위기지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업(科業)’만을 위주한다는 점을 최충에 대한 주요 비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최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 최충의 구재명과 교과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위인지학’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선전기 당시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최충이 사는 집과 창적(蒼赤)을 내어서 학교를 세웠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구재를 오부학당이 계승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조선 건국초에 권학사목을 저술한 권근이 지은 최충의 중수화상찬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몸은 주석이 되어 나라에 업적을 남겼고 집은 학공을 만들어 교화의 공이 컸도다. 문헌(文憲)의 공은 진신(縉紳)의 모범이 되었으니 후학은

72)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7월 27일.

그를 받들어 길이 그의 높은 덕망을 우리러 보리.⁷³⁾

그래서 세종대에는 최충의 문묘종사 논의를 권근과 함께 명하고 있다.

권근을 종사하는 것의 가부를 의논할 때에, 최충·하윤들과 같은 전후의 명신도 함께 의논해서 알리라고 명하였다.⁷⁴⁾

최충과 권근을 함께 논의하는 이유는 유종(儒宗)의 개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최충은 고려 당대에 유종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개념은 권근에게도 적용되고 있다⁷⁵⁾는 점이다. 또 고려 후기에 유종으로 인식되는 이색은 권근과는 사돈 관계이다. 이색의 아들인 이종선(李種善)이 권근의 딸과 혼인을 하고 있다. 또 권근은 이색의 종지를 전수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으며,⁷⁶⁾ 태종 7년(1407)에 「권학사목」을 저술하고 있다. 고려시대 유종은 최충-이색으로 연결되고, 조선 초기에는 권근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현-이색-권근으로 계승되는 학자들에 대한 문묘종사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⁷⁷⁾ 이것은 학문전수의 공적을 중요시하여 도통을 확립하려는 공적론에 입각한 것이라고⁷⁸⁾ 한다. 최충을 권근과 같은 공적론에 입각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결과론적으로 권근이 문묘종사에 실패하였기 때문에⁷⁹⁾ 동시에 최충도 문묘종사가 성립될 수 없

73) 『최충 연구 논총』 475쪽.

74)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10월 24일.

75) 『동사강목』 제4 상, 신라 태종 7년. 按. “양촌(陽村)은 일세(一世)의 유종(儒宗)인데도 그 말이 이러하였으니, 후인들이 정말로 그런 것이라고 믿지나 않을까 하는 까닭에 변론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6)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3월 3일.

77) 『세종실록』 권72, 세종 18년 5월 12일.

78) 지두환, 「문묘사건의 정비와 도통론의 확립」 『조선전기 의례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188쪽.

79) 지두환, 「문묘사건의 정비와 도통론의 확립」 173쪽에서 “권근의 문묘배향이 거론되지만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오히려 이와같은 공적론에 대립하여 절의를 지킨 정몽주의 추승이 성리학 이해진전과 더불어 일어나 다음대의 문

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종의 구재에서 실시하던 경학 교육 방식을 성균관에서 원용(援用)하도록 하고 있다.

예조 참관 유영이 계하기를, “신이 듣건대, 성균관에서는 근년 이래로 제술만 전용하고 강과는 시험하지 않으므로, 생도들이 오로지 초록하여 모으는 것만 일삼고 경학에는 힘쓰지 않는다고 하니, 심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원컨대 구재의 예에 따라 고강하여 차례대로 승진시킨다면 학생들이 자연히 학업에 부지런할 것이며 館에 있을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성균관뿐만 아니라 외방의 향학도 또한 그러하니, 변계량과 함께 자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⁸⁰⁾

그래서 성균관에서 제술만 힘쓰고 경학을 힘쓰지 않는데 대한 해결책으로 구재의 교학 방법을 도입하여 성균관뿐만 아니라 향교에도 시행하라고 한다. 구재가 경학 교육을 중시했음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세조 즉위 이후 훈척과 사림은 공적론에 입각한 도통론과 절의론에 입각한 도통론으로 대립하면서 권근의 문묘 종사 논의가 다시 일어난다.⁸¹⁾ 그래서 양성지가 상소하여 최종과 권근을 함께 문묘에 종사하자고 한다.⁸²⁾ 양성지는 성종 9년(1478)에 다시 ‘風俗學校十二事’를 올려서 청한다.⁸³⁾ 최종을 이체현, 정몽주, 권근과 동격으로 두고 문묘종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 초기에 최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와 문묘종사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던지 최종의 고향에서는 성종 당시에 이미 향교의 문묘에 종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성종 20년 황해도관찰사 안처량이 해주 향교의 문묘에 최종과 최유선이 종사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그래서 예조에 문의

묘종사 논의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80)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2월 12일.

81) 지두환, 「문묘사건의 정비와 도통론의 확립」 189쪽.

82)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3월 28일.

83) 『訥齋集』 권4, 風俗學校十二事. “高麗之崔冲 李齊賢 鄭夢周 本朝之權近 俱有功於斯文者也 乞皆配享文廟 以新一代之耳目 以變一代之士習”

한 결과 “동방에 학교를 일으킨 것이 대개 최종으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그 때에 해동 공자라고 일컬었고, 정종 묘정에 배향하였으나, 향교의 문묘에 종사한 까닭은 상고할 만한 글이 없습니다.”⁸⁴⁾고 하면서 문묘사전에는 근거가 없다고 밝힌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문묘사전에 근거 없이 종사해온 인물이 더 없는지 조사하라고 하였다. 그 결과 세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해주의 최종·최유선과 김제의 조간이다.

예조(禮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해주(海州) 향교의 최종(崔冲)·최유선(崔惟善)과 김제 향교의 조간은 모두 종사하는 줄에 들어 있는데, 삼가 고례(古例)를 살펴보면, 태주(泰州)에 오현당(五賢堂)이 있고 요주(饒州)에 삼현당(三賢堂)이 있고 여릉(廬陵)에 구양수묘(歐陽脩廟)가 있고 유주(柳州)에 유자후묘(柳子厚廟)가 있으니, 한 고을에서 공덕(功德)이 있는 향선생(鄉先生)을 위하여 따로 사당을 세워서 제사하는 것은 있으나, 문묘에 종사하는 것으로 말하면 예전에 그런 예가 없으니, 최종·최유선·조간의 종사를 폐지하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⁸⁵⁾

그러자 성종은 세 사람의 문묘종사 논의를 다시 의논하라고 하였는데 이때 나온 의견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문묘종사를 하지 말자는 것, 향묘에 종사하지는 것, 오현당 및 여릉·유주 등의 사당의 예에 의해 따로 사당을 세우자는 것⁸⁶⁾ 등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왕이 “문묘에 종사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여, 당시 목사인 정성근이 파한 것으로 보인다.⁸⁷⁾ 그래도 최종은 유종원(柳宗元), 구양수(歐陽脩), 삼현당(三賢堂), 오현당(五賢堂)에 비유되고 있다.

84) 『성종실록』 권224, 성종 20년 1월 4일.

85) 『성종실록』 권230, 성종 20년 7월 11일.

86) 『성종실록』 권233, 성종 20년 10월 25일

8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3, 황해도(黃海道), 해주목(海州牧). “학교. 향교 고을 북쪽 2리에 있는데, 문헌공(文憲公) 최종(崔冲)의 옛 집터이다. 지방 사람들이 최종을 문묘에 배향하였는데 목사 정성근(鄭誠謹)이 사전(祀典)에 없는 것이라 하여 파하였다.”

최충에 대한 상황 변화가 중종대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최충과 비교되는 호원⁸⁸⁾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중종대 『소학』 운동이 펼쳐진 때문으로⁸⁹⁾ 보인다. 특히 『소학』에 실린 호원의 모습은 사유(師儒)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칭된다.⁹⁰⁾ 그래서 중종 2년(1507) 대사간 강경서·사간 김당 등이 상소하여 “학문과 덕행이 있는 사유로 호원”⁹¹⁾을 인식하고 있다. 조광조는 특히 호원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중종 13년에 “송나라 때에는 천하를 통일한 대국이었지만, 호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⁹²⁾고 하였다. 또 왕이 호원은 문사를 숭상하지 않았다고 하니, 조광조는 ‘호원과 같은 사람을 얻기가 정말 힘들다’⁹³⁾고 하였다. 중종 37년에는 호원이 중국 문묘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⁹⁴⁾ 계속해서 문묘의 문제가 중국과 다르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으며 양시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는데 “양시(楊時) 같은 사람은 정자(程子)의 우수한 제자로서 남송 때에 이르러 주희(朱熹)에게 도를 전한 분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배향하지 않았으므로 선비들의 공론이 온당하지 못하게 여깁니다.”⁹⁵⁾고 할 정도였다. 양시의 스승이 정자이고, 정자의 스승이 호원이란 사실은 호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중종반정

88) 이성호, 「최충과 호원의 분재교학법 비교」.

89) 金恒洙, 「16세기 士林의 性理學 理解 - 書籍의 刊行·編纂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7(1981); 尹炳喜, 「朝鮮 中宗朝 士風과 小學; 新進士類들의 道德政治 具現과 관련하여」 『歷史學報』 103(1984).

90) 『소학(小學)』 권6, 善行. “安定先生胡瑗 字翼之 患隋唐以來 仕進尙文辭而遺經業 苟趨祿利 及爲蘇湖二州教授 嚴條約 雖大暑 必公服終日 以見諸生 嚴師弟子之禮 解經至有要義 懇懇爲諸生 言其所以治己 而後治乎人者 學徒千數 日月刮削 爲文章 皆傳經義 必以理勝 信其師說 敦尙行實 後爲太學 四方歸之 庠舍不能容 其在湖學 置經義齋治事齋 經義齋者 擇疏通有器局者居之 治事齋者 人各治一事 又兼一事 如治民治兵水利算數之類 其在太學亦然 其弟子散在四方 隨其人賢愚 皆循循雅飭 其言談舉止 遇之不問可知爲先生弟子 其學者 相語稱先生 不問可知爲胡公也”

91) 『중종실록』 권3, 중종 2년 6월 10일.

92) 『중종실록』 권34, 중종 13년 11월 1일.

93)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5월 11일.

94) 『중종실록』 권99, 중종 37년 12월 25일.

95) 『중종실록』 권102, 중종 39년 4월 4일.

이후 주자성리학에 입각한 질서가 회복되면서 도통론의 확립을 서둘러 가는 현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원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최충에 대한 재평가도 다시 시도하고 있었다. 중종 11년(1516)에는 평안도 관찰사 안윤덕이 장계하여 평양부의 문묘에 최충이 종사되어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고, 중종 14년에는 황해도 관찰사 김정국이 장계하여 해주의 문묘에 최충·최유선을 종향(從享)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해주의 문묘에 예문이 있는데 문헌공 최충·문화공 최유선을 기록하지 않고 동부에 종향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해주 사람에게 물어보니 ‘문헌 부자는 본래 본주 사람으로 사문에 공이 있기 때문에 주학에 배향한 지 유래가 오래되었다.’ 하였습니다. 문헌 부자가 학(學)에 공은 있다지만 예전(禮典)에 실려 있는 상사(常祀)가 있고 비록 주현(州縣)의 학이라도 국학(國學) 아닌 것이 아닌데 각기 사건으로 마음대로 종향하는 것은 지극히 지나친 예가 되어 사체에 의(義)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향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대대로 고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까닭이 있는 것 같아 신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으니, 그 전대로 두어야 할지의 여부를 정부에 의논토록 하소서.”하였다.⁹⁶⁾

분명히 성종 때 목사 정성근이 파하였다고 하지만 지방 인사들의 인식에서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충은 사문에 공이 있으므로 제사지내지 않는 것도 미안하니 향인의 뜻을 좇아 사우(祀宇)를 세우도록 허락하기를 청합니다.”⁹⁷⁾고 하였다. 이때의 실록기사에는 『여지승람』을 인용하면서 “동방에서 학교의 융성은 대개 최충으로부터 시작되어 당시에는 해동공자라 칭하였다.”⁹⁸⁾는 『고려사』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다. 중종대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으로 조광조가 정국을 주도하던 시기라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중종 14년

96) 『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1월 6일.

97) 『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1월 6일.

98) 『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1월 6일.

11월 이후에 기묘사화로 인해서 모두 중단되게 된다. 그리고 중종 12년(1517)에 정몽주가 문묘종사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최충을 더 이상 종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자 다른 방면에서 최충을 존송하고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서원 건립이었다. 명종 4년(1549)에 해주에 문헌서원을 세워 문헌공 최충을 향사하고 최충의 아들 최유선을 배향하였다. 그런데 서원 건립에는 퇴계 이황의 공로가 지대하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최충·우탁·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 등이 살던 곳에 모두 서원을 건립하되 혹은 조정의 명에 의하고 혹 사사료이 건립하여서 책을 읽고 학문을 닦는 곳이 되어 성조(聖朝)의 학문을 존중하는 교화와 태평한 세상의 교육의 융성을 빛내고 드높일 것입니다.⁹⁹⁾

이 사료는 퇴계가 풍기군수를 사임하면서 명종 4년(1549) 9월경에 올린 편지이다. 여기서 고려시대 서원 건립 해당 인물은 4명 밖에 되지 않는다. 최충·우탁·정몽주·길재이다. 이런 모습은 후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명종 10년에는 생원 김택 등이 상소하여 문헌서원에 편액과 서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임고서원(臨臯書院)의 예에 따라 내리도록 한다.¹⁰⁰⁾ 임고서원은 정몽주를 모신 서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퇴계의 이런 생각은 기대승¹⁰¹⁾에게 연결되고 있다. 명종 22년(1567)에 중국 사신 허국(許國)과 위시량(魏時亮)이 공맹(孔孟)의 심학(心學)과 기자의 홍범구주의 수를 아는자가 있는가를 물었을 때 최충도 포함해서 대답한다.¹⁰²⁾ 이때의 명단은 설충, 최치원, 최충, 안유, 우탁, 정몽주, 이색, 길재, 윤상,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김안국, 이언적, 서경덕이다. 그러나 성리학은 우탁과 정몽주부터 시

99) 『퇴계선생문집』 권9, 서(書) 1, 심방백(沈方伯) 통원(通源)에게 올린다.

100)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2월 25일.

101) 기대승도 시호가 문헌이다.

102) 『고봉속집』 권2, 잡저(雜著), 천사(天使) 허국(許國)·위시량(魏時亮)의 문목(問目)에 대해 조목조목 답함.

작된다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은 성리학적 입장에서의 문묘종사에는 한계가 여전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우선 최종의 문묘 종사와 연관있는 호원의 문묘종사를 먼저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흥치 때에 양시를 부묘하고 가정 때에 구양수·호원·설신을 추가하였던 것이니, 우리나라에서도 마땅히 강구하여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¹⁰³⁾

율곡의 지우(知友)인 조헌도 주장하고 있다.¹⁰⁴⁾ 이때 호원이 문묘종사되었다면 최종에 대한 입장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미 명나라에서 구양수, 양시, 호안국 등이 문묘종사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헌까지 주장하지만 시행되지 않은 것이 최종의 문묘종사가 늦어지게 되는 원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배불정책으로 최종이 지은 원공국사 비문 때문으로 이는 이색이 불교 승려와 교류가 많고 비문도 지어 문묘종사에서 배척된 것과 같다¹⁰⁵⁾고 한다. 이렇게 문묘종사가 어렵게 되자 최종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존숭이 나타나는데 율곡 이이가 그 중심 인물이다. 율곡은 선조 10년(1577)에 해주향약에서 “문헌공 사당에도 역시 문을 열어 청소하고 향로와 향합을 설치한다.”¹⁰⁶⁾고 하여 존숭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의 모습에 대해 『임하필기』에서는 “또 부자(夫子), 사성(四聖) 및 주자(周子), 이정(二程), 주자(朱子)의 위판을 강당에 설치하고 이곳에 이르는 자들은 모두 두 번 절하도록 하였다. 이어 문헌공묘에 절하게 하였으니, 곧 최종의 사당으로 해주에 있었다.”¹⁰⁷⁾고 하였다. 또 율곡은 석담(石潭)에서 물러나와 있을 때 문헌서원에 공자를 모시고 자신이 산장(山長)이 되

103) 『선조수정실록』 권8, 선조 7년 11월 1일.

104) 『重峯先生文集』 권3, 疏,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 “歐陽脩扶聖道闢異端 朱子稱爲仁義之人 胡瑗修己治人之學 首洗隋唐趨利之習 楊時承程氏之緒 下傳羅李 以及朱子薛瑄 奮乎絕學 篤志力行 所以弘治附以楊時 嘉靖益以歐陽胡薛 我朝所當講求而從之者也”

105) 지두환, 『한국사상사』, 331~332쪽.

106) 『율곡선생전서』 권16, 잡저(雜著), 해주향약(海州鄉約).

107) 『임하필기』 권17,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향약(鄉約)을 읽다.

려고 하였으나 후손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 11년(1578)에 문헌서원 학규를 지어서 후생들이 힘쓰도록 하고 있다. 율곡 이후에 문헌서원 학규는 공부하는 학도들의 본보기가 되었음을¹⁰⁸⁾ 알 수 있다.

IV. 조선 후기

최충의 학문이 ‘심학(心學)’으로 인식된 이후에 최충 집안에서는 추송 작업에 나서는데, 후손 최유해(崔有海, 1587~1641)가 「구재명당서(九齋名堂書)」를 저술한다.

송의 정자·주자가 일어난 뒤에야 강유(綱維)를 만들고 후인을 인도한 것이 이 구재의 뜻으로 종사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선조의 도학의 연원이 올바른 것이었음은 또 이것들을 근거해서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理)는 대하여는 체(體)와 용(用)을 들어서 함께 말한 뒤에라야 그 뜻이 정밀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성(性)을 따르는 [率性] 데에 중요함이 되고, 도로 나가는[造道] 시작이 되는 것이다.¹⁰⁹⁾

최유해는 최충의 18세손으로 구재의 명칭에서 추론하고는 정자·주자 보다 사상이 앞섰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理)와 체용(體用)을 함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북송의 호원과 동일한 모습이다. 특히 호원은 체용학을 발명하여 정자의 존중을 받았으며¹¹⁰⁾ 북송 이학

108) 『동춘당집』 별집, 권9, 부록(附錄). “선생이 학도로 하여금 주자의 백록동교조(白鹿洞教條)와 율곡 선생의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와 문헌서원학규(文憲書院學規) 등의 문자를 등사해 문 위에 붙여 놓고서 조석으로 이를 보고 반성할 자료로 삼게 하며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는 양식(樣式)이니, 너희들은 항상 완미하여 본보기로 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109) 『최충연구논총』, 382~383쪽.

110) 劉明鍾, 「崔沖先生과 文憲公徒의 宋學受容」 80쪽. 그는 체용학을 발명하여 정이천의 스승으로 특별한 존경을 받았다.

(理學)의 시조로 인식되고 있다.¹¹¹⁾ 최충의 체용론은 바로 호원의 체용론과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더욱 발전된 체계인 『대학』의 ‘修身齊家治國’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밝히 연구가 있다.¹¹²⁾

또 22세손 최홍중(崔弘中)도 「해주구재유허비기(海州九齋遺墟碑記)」를 짓고 있다.

공은 정자·주자보다 먼저 태어나서 의리의 학문을 처음으로 밝혔고 구재를 설치하여 생도들을 가르치니 세상 사람들이 해동공자라 칭하였다.¹¹³⁾

역시 성리학적인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리의 학문’인 ‘이학(理學)’을 정자·주자 보다 먼저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조선 전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기대승이 최충에 대해서 ‘공맹의 심학’을 지내고 있다는 평가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최충이 ‘이학(理學)’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최충 당대 유학의 성격일 수도 있다.¹¹⁴⁾ 이후 「구재연의(九齋衍義)」에서는 구재의 각 재명(齋名)을 성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¹¹⁵⁾ 최충의 후손들은 최충에게 주자성리학의 시원(始原)이라는 영예를 부여하고 싶어 하였다. 이런 후손들의 인식과는 별개로 병자호란 직후에는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역대 명신을 현창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최충에게도 명신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었으니, 잠곡 김육(金堉)은 선현들의 사적을 논하면

111) 앞의 주(註) 10번 참조.

112) 이성호, 「최충과 호원의 분재교학법 비교」.

113) 『최충연구논총』, 395쪽.

114) 문철영, 『고려유학 사상의 새로운 모색』, 15쪽. “의리·심성화의 측면에서 심성학적인 송학 형성과의 평행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고려전기 유학사상의 성격이 …”라고 하였다.

115) 김충열, 『한국유학사 1』(서울: 예문서원, 1998), 83쪽. “九齋衍義라는 논설을 펴기도 하였으나 건강부회한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최충의 사학에서 ‘위인지학’이 아니라 ‘위기지학’을 교육하였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추론임에는 틀림없다”고 하였다.

서 최충을 포함하고 있다.¹¹⁶⁾ 이때 논의에 참여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강석기, 민형남, 김상헌, 윤황, 이시매 등이다. 또 선정된 인물들 중에서 고려의 인물로는 최충, 안유, 이색, 정몽주, 이존오, 길재, 김주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김육은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을 편찬하였다. 『해동명신록』은 결국 주자의 『송명신록(宋名臣錄)』을 조선에서도 구현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래서 이 책에는 통일신라 시대에서 조선 인조조에 이르는 301명의 전기를 수록하였는데, 대부분이 조선 시대 인물이다. 신라인으로 설총·최치원, 고려인으로 최충·안유·정몽주·길재 4인이 권1에 수록되었다.¹¹⁷⁾ 이것은 고려말 ‘유중’으로 칭한 설총·최치원·최충·이색과 비교하면 이색 대신에 길재가 들어간 정도의 차이이다. 이 때문에 구황이 절실한 인조대에 최충에 대한 인식이 명재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 가장 급한 일로서 구황 정책보다 더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례』 황정은 당연히 강명하고 신칙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난 고려 성종 때에 김심언이 소를 올려 유항의 『설원』에 있는 육정육사와 『한서』에 있는 자사육조를 써서 벽에다 붙여 놓고 드나들며 읽어 귀감으로 삼을 것을 청하자, 왕이 큰 포상을 내리고 아뢴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뒤에 최충이, 이것이 세월이 오래 되어 바랬으니 다시 써 붙여서 신칙하고 권려하는 도리를 알도록 하여야 된다고 하자, 또 그대로 따랐는데, 그 말은 모두가 절실하고, 또 예전에 훈계한 내용입니다.¹¹⁸⁾

인조 23년(1645)의 기록으로 최충의 육정육사와 자사육조를 절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효종 4년에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다.¹¹⁹⁾ 최충이 구휼정책을 잘하였다는 점을 『고려사』를 통해 잘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정몽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다.

116) 『잠곡유고』 권14, 녹(錄), 조경일록(朝京日錄).

117) 『海東名臣錄』, 규장각 古 4653-6-v.1-9.

118)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10월 9일.

119) 『효종실록』 권10, 효종 4년 1월 6일.

우리 동방은 원래부터 문명의 나라로 일컬어져 왔지만 학문에 종사하는 전혀 없었다. 설총(薛聰)이나 최치원(崔致遠) 같은 사람들이 공무(孔廡)에 배향되긴 하였지만 그들은 일개 문한(文翰)의 인사에 불과하다. 고려조에 들어와서는 핑유(宏儒)가 많이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탁(禹倬)·최충(崔冲)·안유(安裕) 등이 걸출한 자였다고 하겠으나 중국의 명유(名儒)에 비교하면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그런데 포은 정공(圃隱鄭公, 정몽주) 같은 이는 당대의 숙학(宿學)으로서 그를 유종(儒宗)으로 추대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중흥무진으로 펼치는 설에 이치가 타당하지 않은 말이 없고 그의 높고 큰 충절 또한 하늘과 땅에 뻗치고 해·달·별에 견줄 정도로 불후(不朽)한 것이니, 그를 유종으로 받드는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는가.¹²⁰⁾

정몽주는 성리학적 입장에서의 ‘유종’이고 최충은 핑유(宏儒)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장유(張維, 1587~1638)는 최충의 홍경사비문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내린다.

한림학사가 지어낸 빼어난 비문 / 그동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가 / 오백 년도 훨씬 넘어섰어라 / (중략) / 그래도 문장만은 조금 의지할 만 하여 / 흐르는 세월 따라 마멸이 되지 않아 / 차마 떠나지 못한 채 빛 돌 쓰다듬으면서 / 지는 해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노라 / 그저 원한다면 탁본 널리 전해져서 / 무궁한 세월 동안 감상될 수 있기만을.¹²¹⁾

최충의 문장이 탁본되어서 오래도록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최충의 홍경사비문은 문묘에 종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였다.¹²²⁾ 홍경사는 현종(顯宗)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안종(安宗) 옥(郁)을 기념하여 지은 사찰로, 큰 절을 지어 나 그네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던 안종의 뜻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

120) 『상촌선생집』 권52, 求正錄上, 春城錄.

121) 『계곡선생집』 권25, 五言古詩, 弘慶寺碑 和崎翁韻.

122) 『南溪集』 권3, 詩, 過弘慶寺碑 次鄭松江韻, “勝國崇天竺 宗儒撰石文 祗今夫子廟 非獨媿孤雲”

다. 홍경사가 세워진 곳은 직산현(稷山縣) 성환역(成歡驛) 근처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지만 여행자들의 숙소가 없고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었다. 이곳에 건립된 홍경사는 불교의 신앙과 함께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현종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사찰 옆에 광연통화원(廣緣通化院)이라는 객관(客館)을 함께 짓도록 하였다. 홍경사 건립 목적 자체는 여행자를 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고, 불교적 내용을 사상(捨象)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장유(張維)와 같은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조선시대 시문 중에서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는 최초이다. 이와같은 변화는 최충의 사상을 ‘심학(心學) 및 이학(理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후 좀 더 적극적인 인식이 등장하는데 홍양호(1724~1802)는 「자하동구재유허비명(紫霞洞九齋遺墟碑名)」을 짓고 있다.

고려 성종 병술년¹²³⁾에서 출생하였으며 중국으로는 송 태종 옹희 3년이다. 이때는 주자·정자와 같은 여러 학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공자와 맹자의 도가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 아니했는데 선생께서 해외에서 펼쳐 일어나서 이 도를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붙인 구재의 명칭 중에 성명, 술성과 같은 것은 정자보다 앞섰고 도를 전한 공적이 천년 뒤에 은연중 들어맞았으니 아아 위대하다.¹²⁴⁾

특히 구재의 명칭은 『중용』의 ‘성명’과 ‘술성’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자보다도 앞섰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헌서원구재기(文憲書院九齋記)」에서 『중용』에 대해서 다시 부연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중용』을 표장한 것이 정자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선생께서는 이 『중용』의 말을 가지고 재실(齋室)의 이름을 삼아서 학자를 가

123) 공식 기록으로는 984년 甲申이다.

124) 『최충연구논총』, 390~391쪽.

르쳤으니 성인이 전하신 도의 은미한 말을 깊이 깨달아 알았으며 정자·주자의 뜻과 암합(暗合)된 것이 이와 같았음을 알 수 있다.¹²⁵⁾

최충이 『중용』을 표장한 것이 정자보다 앞섰다는 인식이다. 정자보다 앞섰다는 인식은 바로 호원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홍양호의 이런 논의는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주면서 좀더 적극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철종 11년(1860)에 발행된 『화해사전(華海師全)』¹²⁶⁾의 ‘동방연원록(東方淵源錄)’에는 고려 유학의 흐름이 최충에게서 시작된다고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

신문정(申文貞), 이가정(李稼亭), 정포은(鄭圃隱) 및 여러 선생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역동 선생으로 안문성에 비할 것 같으면 낮기가 멀고, 최충에게 비해보면 비슷할 것이다” 하니, 대체로 선생의 도(道)의 대략이 이와 같다 하였다. 송죽장(松竹場) 서견(徐甄)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 국가의 진유는 최문헌이 처음으로 창제하여 이후에 문물을 일으킨 가운데 키워온 사람으로 유도(儒道) 기상을 가진 자가 많이 일어났고 가히 말할만 한 자도 많다.” … 세동(世東)인 내가 여러 선생님 말을 듣고 또 원운곡의 의논을 인하여 기자(箕子)로부터 홍유후(弘儒侯)로 일어나서 문헌(文憲), 회현(晦軒), 역동(易東)을 두루 지나서 간재(簡齋), 포은, 목은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닦아 동방 사문(斯文)의 연원과 행장을 만들 때 불훤재(不諼齋) 간재에 대하여는 각부를 나누지 않고 화동기(話東記) 가운데 붙였다. … 신불훤재 선생이 김득배(金得培)에 대해 말하기를, “거룩하다 우리 국가가 중세(中世)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향내가 가득한 것은 모두 최충 선생의 화단에서 자라난 화초이다.” 하였다.¹²⁷⁾

125) 『최충연구논총』, 388쪽.

126) 김정자, 「두문동 72현의 선정인물에 대한 검토」 『부대사학』 22, 1998, 14쪽에 “『화해사전』은 고려말 불훤재 신현(申賢)과 그의 자손에 관한 글을 모아 놓은 것으로 철종 11년(1860) 그의 후손인 평산신씨 집안에서 간행하였다. 규장각소장본(규12393) 『화해사전』은 서(序)와 발(跋)이 없고 본문만이 있는 책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의문시된다고 하나 권5에 실려 있는 발미(跋尾)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료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였다.

127) 『최충연구논총』, 534~536쪽.

국가의 진유(眞儒)이면서 정몽주에 이르는 성리학의 출발을 최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최종이 과소 평가된 이유는 무신정변 때 관련 기록이 인멸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덧붙인다.

고려 의종 24년 경인에 흉측한 무인 정중부의 난에 중부 등의 문신에게 쌓인 분노를 ‘선생[최충]으로 말미암는 것이라’하여 중학과 국학·군학을 모두 불사르고, 선유의 사당과 구재와 함께 사정없이 선생의 문집을 뒤져서 있는 대로 불에 집어던져 남는 것이 없게 하였으니, 아! 선생의 문적은 정미하고 자상하여 신묘했을 것인데도, 하늘은 무엇 때문에 그 분의 도가 후세에 전하지 못하게 막았는가. 아깝다!라고 하였다.¹²⁸⁾

결국 이 사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를 본다면, 문집 소실로 인해 최종의 학문과 업적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져 마침내 문묘종사가 불가능해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V. 근대

근대에서는 조선후기의 인식을 뛰어넘어 드디어 최종과 호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되는데, 장지연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한 『조선유교연원』에서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1922년 책으로 간행한다. 이 책에서 최종의 구재를 서술하고 그 설명에 부연하는 내용이 관심을 끈다.

송나라 유학자 안정 호원과는 시대도 같으면서 후진을 교수하는 공로도 역시 같다.¹²⁹⁾

128) 『東方淵源錄』 『華海師全』.(유명중, 『崔沖先生과 文憲公徒의 宋學受容』, 69쪽에서 재인용)

129) 장지연, 『조선유교연원』, 5쪽.

조선후기까지는 주로 정자·주자와 동시대라고 하거나 앞섰다고 표현하였지만 직접 호원과 동시대로 비교하고 그 교학 내용도 동일하게 비교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영향은 근대인 1919년에 최경식(崔暲植)이 편찬한 『최자전실기(崔子全實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최경식은 정확한 생몰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18년에 그가 간행한 『홍문공정선생양대실록(弘文公鄭先生兩代實錄)』의 서문에서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웃 친구이자 은사(隱士)인 중계(重溪) 최경식(崔暲植)은 총명한 재주를 지니고 고금의 사적을 두루 읽지 않은 것이 없어 박학(博學)·다문(多聞)하다. 그런 까닭에 한마디로 요약하여 서술한다면 중계(重溪)는 최문헌공의 현운(賢雲)이자 동시에 12도의 후예이다. … 무오년 8월 신미일에 홍문공의 30세손인 생원 수원(秀元)이 삼가 쓴다.¹³⁰⁾

이 서문은 정수원(鄭秀元)이 썼다. 그는 사마방목에 의하면 고종 19년(1882)의 증광시에 생원 3등 44위로 합격하였다.¹³¹⁾ 출생년도는 철종 2년(1851)이고, 거주지가 해주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인용문에 보이듯이 정수원은 최경식과는 이웃 친구라고 하였기 때문에 최경식의 출생지 혹은 거주지가 해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경식은 최충의 후손임을 미리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서문은 최충과 함께 사학 12도를 세운 정배걸(鄭倍傑)의 후손이 조상을 현창하기 위한 사업으로 같은 사학 12도의 후손인 최경식(崔暲植)에게 의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경식은 정배걸에 관한 책을 저술한 직후인 1919년에는 자신의 선조인 최충에 관한 『최자전실기(崔子全實記)』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 서문은 정만조(鄭萬朝, 1858~1936)가 짓고 있으니, 사학 12도의 후손 가문끼리 동시에 현창 작업에 나섰다는 것을 알

130) 『홍문공정선생양대실록(弘文公鄭先生兩代實錄)』, 4쪽. “隣友 隱士 重溪 崔暲植 以聰慧之才 古今史籍 無不徧覽 博學多聞 故要以一言敘述 則重溪以崔文憲公之賢雲 同是十二徒之后裔也 … 戊午八月辛未 弘文公 三十世孫生員秀元謹識”

131) 『崇禎紀元後五壬午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33])

수 있다. 그런데 정만조의 출생연도가 정수원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최경식, 정수원, 정만조는 동시대에 활약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3·1 운동 전후의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최경식은 최충의 연보에서 중요한 사료를 하나 인용하는데, 시남 유계(兪棨, 1607~1664)가 『여사제강』¹³²⁾에서 쓴 것을 인용하였다고 한다.

여씨중에 “나라와 집안이 앞으로 일어나려할 때는 반드시 아름다운 상서가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였다. 규성(奎星)은 진실로 태평한 시대를 상징하니 이는 우리 유학이 열릴 징조였다. 이 때는 안사로(顔師魯)와 손명복(孫明復)의 경전 주석이나, 호안정(胡安定)과 ‘호소지교(湖蘇之教)’나 정자와 주자의 학문이 천하에 나타나지도 아니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서는 그 아름다운 꽃이 이미 활짝 피어난 것이다.¹³³⁾

최충의 문헌공도와 ‘송초삼선생’인 호원[호안정]과 손복[손명복]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실제 『여사제강』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체가 바로 최충과 호원을 동일시하고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왜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호원이 정자의 스승이기 때문일 것이고,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주자성리학의 원류가 호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호원과 동일시하는 것은 앞의 『화해사전』에서 최충을 고려시대 성리학의 원류라고 인식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여사제강』에서 인용하였다는 위의 사료는 실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용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유계를 통해서 최충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보인다. 이 내용은 1984년 경희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에서 출간한 『최충연구논총』과 1999년 문헌공최충선생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에 그대로 전제되면서 출

132) 현종 8년(1667)에 간행.

133) 『최충연구논총』, 292쪽. “呂氏中曰 國家將興 必有休祥 奎星固太平之象 然實啓斯文之兆也 當是時 師魯明復之經 安定湖蘇之教 伊洛閩中之學 未出於天下 而其精華已露於此矣”

진을 『여사제강』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이 사료는 송나라 여중(呂中)이 편찬한 『송대사기강의(宋大事記講義)』 권3에 실린 내용과 글자의 이동(異同)은 있으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¹³⁴⁾ 건덕 5년(967)에 규성이 보였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또 인용문의 ‘여씨중(呂氏中)’은 저자인 ‘여중(呂中)’의 오기(誤記)이다. 이 사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해주최씨가장(海州崔氏家藏)」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자전실기』를 저술하면서 최초로 포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최충에 대한 인식에서는 분명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자인 최경식은 최충을 ‘최자(崔子)’라고 존송하는 평가를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경식은 최충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조를 현창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성인의 칭호인 ‘자(子)’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충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는 기여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 이후에는 최충을 문묘 종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택영(1850~1927)은 1921년에 이런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고려 최문헌공은 주렴계 이전에 태어나서 먼저 성명의 의리를 발명하여 학재(學齋: 구재)에 계시하여 문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해동공자라고 칭하였다. 이 두 사람이 어찌 설홍유(필자: 설총)보다 아래이겠는가.¹³⁵⁾

134) 『宋大事記講義』 권3. “乾德五年三月 五星聚奎 初寶嚴與盧多遜楊徽之 周顯德中同爲諫官 嚴善推步 嘗曰 丁卯歲 五星聚奎 自此天下太平(國家治亂 雖人事也 亦天數也 蓋風氣推移淳漓不同 世治則人漓 所以治極必亂 世亂則人淳 所以亂極生治 以五代雲霧昏暝之久 啓我宋天日開明之時 天降時雨山川出雲 國家將興 必有休祥 五星聚奎固太平之象 而實啓文明之兆也 當是時 歐蘇之文未盛 師魯明復之經未出 安定湖學之說未行於西北 伊洛關中之學未盛於天下 而文治精華 已露於立國之初矣)”

135) 『韶濩堂文集定本』 권8, 私議, 金堯泉先生宜配饗聖廟私議(辛酉). “高麗崔文憲公生於周濂溪之前 先發誠明之義 揭其學齋 以教其徒 時人稱爲海東孔子 此二人豈在薛弘儒下哉”

이 글의 도입부에 보이는 ‘주렴계 이전에 태어나서’는 앞의 최홍중(崔弘中)의 글에서 ‘정자·주자’를 대체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설총이 고려의 문묘에 종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렴계보다 먼저 ‘성명의 의리’를 발명한 최충은 당연히 문묘에 종향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1935년에 이능화도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우리 동방의 이학(理學)은 문충공 정몽주가 원조(元祖)이지만 겨우 맹아를 발명하였을 뿐이다. 최문헌공은 조송(趙宋)과 시대를 함께 하였다. 정자·주자 체인(諸人)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으니 하물며 그 성리의 학설이 고려에 전파되었다고 논할 수 있겠는가. … 그런즉 최문헌공은 비단 해동공자일 뿐만 아니라 역시 해동정주(海東程朱)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동공자의 영령(英靈)이 해동의 공묘(孔廟)에 혈식(血食)되지 못하는 것이 옳겠는가.¹³⁶⁾

동방 이학의 원조는 정몽주이지만 그것은 맹아일 뿐이며, 최충은 해동공자일 뿐만 아니라 해동정주(海東程朱)라고 인식하면서 공묘(孔廟)에 종향되는 게 당연하다고 한다. 최충에 대한 인식의 최종점이다.

VI. 맺음말

고려시대에 최충에게 붙여진 ‘유종(儒宗), 문헌(文憲), 해동공자(海東孔子)’와 같은 다양한 칭호를 부여 받은 학자도 드물다. 유종이란 칭호는 고려 당대에 최충·이색에게 적용하고 있고, 고려에서 추송한 경우에는 설총·최치원에게 적용하고 있다. 설총·최치원은 고려의 문묘에 종사되었다. 중국에서는 숙손통·동중서·유향·한유·구양수 및

136) 이능화, 「고려 최충」, 179쪽. “我東理學 以鄭文忠公夢周 爲之元祖 則僅發萌芽而已 崔文憲公時 與趙宋上世相竝 而程朱諸人 尙未出世 遑論其性理學說之及於高麗哉 … 然則崔文憲公 非但爲海東孔子而已 亦可爲海東程朱也 然則以海東孔子之英靈 不得血食於海東之孔廟可乎”

남송의 주희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숙손통을 제외하고 모두 문묘종사 되었다. 결국 유종이란 칭호는 문묘 종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 문헌이란 시호는 소순(蘇洵)의 『시법(諡法)』에 따라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송성리학의 영향이다. 문헌(文憲)에는 북송대에 선성(先聖)으로 추송된 주공(周公)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고, ‘문헌공도’의 칭호는 사학 12도의 제1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 구재의 재명에서 이미 북송성리학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고, 교과 내용도 경학 위주였다. 또 최충은 공자에 비견되고 있고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해동공자’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으니 ‘유종이면서 해동공자’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최충의 칭호에는 북송성리학의 영향과 함께 문묘종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고려 말에 당연히 문묘 종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전기 에 최충은 권근과 같은 공적론에 입각해서 결국 문묘종사에는 실패하지만 해주 지역에서는 독자적으로 향교의 문묘에 종사하고 있었다. 국가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하여 종사하지 말도록 금지하여 폐지한다. 그러나 종종 때 조광조에 의한 『소학』 운동과 함께 호원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면서 해주 향교에서는 독자적으로 최충을 다시 종사하고 있었다. 이후 최충에 대한 인식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결정적 인물은 퇴계 이황이다. 그의 영향으로 ‘문헌서원’이 건립되게 되었고, 기대승에게 이어져 ‘공맹(孔孟)의 심학(心學)과 기자의 홍범구주의 수를 아는자’로 인식되고 있다. 또 율곡 이이는 해주향약에서 최충을 추송하고, 직접 문헌서원 학규를 저술한다.

최충의 학문이 ‘심학(心學)’으로 인식된 이후에 최충 집안에서는 추송 작업에 나서면서 최충에게 북송성리학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으니, ‘이학(理學)’을 정자·주자 보다 먼저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해동명신록』에서는 최충을 중요 인물로 선정하고 있고, 홍경사 비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최충의 사상을 ‘심학(心學) 및 이학(理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후 최충의 인식 변화에 영

향을 준 인물은 홍양호인데, 그는 최충을 정자보다 앞섰다고 확정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화해사전(華海師全)』에서는 결국 최충을 주자성리학의 시조로 인식하게 된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장지연은 최초로 최충과 호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된다. 호원은 북송성리학의 시원으로 인정되는 학자였기 때문에 최충에게도 같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최충을 ‘최자(崔子)’로 호칭하는 저서가 등장하게 된다. 최충의 후손인 최경식은 이미 사학 12도 중의 하나인 정배결에 대한 저서를 쓰고 난 후에 『최자전실기(崔子全實記)』를 짓고 있다. 이 책에서 『여사제강』을 인용하여 최충을 호원의 ‘호소지교(湖蘇之敎)’와 비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송대사기강의(宋大事記講義)』에서 인용한 글을 『여사제강』이라고 잘못 서술하였다는 점을 필자가 최초로 밝혔다. 최충의 추송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이후 쓰인 글들 중에는 이 오류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게 된다.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최충에 대한 인식에서는 분명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자인 최경식은 최충을 ‘최자(崔子)’라고 존송하는 평가를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후에는 최충을 문묘 중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택영은 설총이 고려의 문묘에 중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렴계보다 먼저 ‘성명의 의리’를 발명한 최충은 당연히 문묘에 중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능화는 최충은 해동공자일 뿐만 아니라 해동정주(海東程朱)라고 인식하면서 공묘(孔廟)에 중향되는게 당연하다고 하였다.

■ 참고문헌

『계곡선생집』,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봉속집』, 『高峯集』, 『광해군일기』, 『舊唐書』, 『기언별집』, 『남계집(南溪集)』, 『논어』, 『訥齋集』, 『동문선』, 『동사강목』, 『禮記大全』, 『臨川文集』, 『勉菴先生文集』, 『명종실록』, 『史記正義』, 『史記』, 『상촌선생집』, 『선조수정실록』, 『성종실록』, 『세조실록』, 『세종실록』, 『소학(小學)』, 『韶濩堂文集定本』, 『宋大事記講義』, 『宋史』, 『송자대전』, 『諡法』, 『新唐書』, 『신증동국여지승람』, 『울곡선생전서』, 『二程子抄釋』, 『인조실록』, 『임하필기』, 『잠곡유고』, 『朱子語類』, 『죽계지(竹溪志)』, 『重峯先生文集』, 『중종실록』, 『靑莊館全書』, 『태종실록』, 『퇴계선생문집』, 『漢書』, 『海東名臣錄』, 『陔余叢考』, 『華海師全』, 『효종실록』

경희대학교전통문화연구소, 『최충연구논총』(서울: 경희대학교출판부, 1984).

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6).

문헌공최충선생기념사업회, 『儒學史上 崔沖의 位相』(서울: 1999).

徐建平, 『胡瑗』(강소성: 중국문사출판사, 2000).

장지연, 『조선유교연원』(서울: 匯東書館, 1922).

지두환, 『한국사상사』(서울: 역사문화, 1999).

金恒洙, 「16세기 士林의 性理學 理解 - 書籍의 刊行·編纂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7(1981).

劉明鍾, 「崔沖先生과 文憲公徒의 宋學受容」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서울: 문헌공최충선생기념사업회, 1999).

尹炳喜, 「朝鮮 中宗朝 士風과 小學; 新進士類들의 道德政治 具現과 관련하여」 『歷史學報』 103(1984).

윤사순, 「주자학이전의 성리학도입문제 - 최충의 구재와도 관련하여 -」 『최충연구논총』(서울: 경희대학교출판부, 1984).

이능화, 「고려 최충」 『청구학총』 22(1935).

이성호, 「최충과 호원의 분재교학법 비교」 『지역과 역사』 28(2011).

지두환, 「문묘사전의 정비와 도통론의 확립」 『조선전기 의례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池斗煥, 「최충의 신유학 사상」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서울: 문헌공최충선생기념사업회, 1999).

채상식, 「성리학과 유불교체의 사상적 맥락」 『역사비평』 26(1994).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Choe Chung(崔冲) and a Comprehension on the discussion of the Enshrinement of Confucian Scholars(文廟從祀)

Lee, Seong-Ho*

Choe Chung had been given many titles such as 'Yujong(儒宗)', 'Munheon(文憲)', and 'Haedonggongja(海東孔子)'. Han Yu(韓愈) and Gu Yangsu(歐陽脩) who were called 'Yujong' in China had a influence on 'Neo-Confucianism of the Northern Song(北宋性理學)'. In Goryeo, Seol Chong(薛聰), Choe Chiwon(崔致遠), Choe Chung, and I Saek(李穡) were called 'Yujong'. The title of 'Munheon(文憲)' was also affected by 'Neo-Confucianism of the Northern Song'. The title of 'Haedonggongja' in East Asia meant a cultural pride. Choe Chung was regard as a person who established a school and trained pupils in compliance with Confucius' wishes. Therefore, he ranked with Howon(胡瑗) of the Northern Song.

Choe Chung, with Gwon Geun(權近), couldn't be enshrined on the basis of his achievements in the first period of Chosun. But the local school(鄉校) of Haeju dedicated the confucian shrine to him because of the movement to spread of *Sohak*(小學) by Jo Gwangjo(趙光祖) and the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of Howon under the reign of King Jungjong(中宗). It was I Hwang(李滉) that provided a turning point for the perception of Choe Chung. I Hwang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Munheon Seowon(文憲書院)' and Gi Daeseung(奇大升) succeeded to his works. Yi I(李珥) enshrined Choe Chung through a

*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bsuhj3@chol.com

lo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鄉約) of Haeju and laid down school regulations of 'Munheon Seowon'.

It was Hong Yangho(洪良浩) who had a critical influence on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hoe Chung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He was regarded as 'Neo-Confucianist of the Northern Song'. Thanks to him, Choe Chung was described as the founder of Neo-Confucianism in *Hwahaesajeon*(『華海師全』).

In Modern Age, Jang Jiyeon(張志淵) compared Choe Chung with Howon directly. Choe Gyeongsik(崔暉植) valued Choe Chung calling 'Choeja(崔子)' in his *Choejajeonsilgi*(『崔子全實記』). He also compared Choe Chung's 'Munheon Gongdo(文憲公徒)' with Howon's 'Hosojigyo(湖蘇之教)', citing *Yeosajegang*(『麗史提綱』). I discovered the fact that it was not *Yeosajegang* but *Songdaesagigangui*(『宋大事記講義』) which he cited. Many authors had cited the mistake uncritically since then. However, Kim Taekyeong(金澤榮) and I Neunghwa(李能和) followed his thought regarding Choe Chung as 'Neo-Confucianist of the Northern Song'.

Key Words Enshrinement of Confucian Scholars(文廟從祀), Choe Chung (崔冲), Yujong(儒宗), Munheon(文憲), Haedonggongja(海東孔子)

논문투고일 : 2012.2.18

논문심사일 : 2012.3.18

게재확정일 : 2012.3.22